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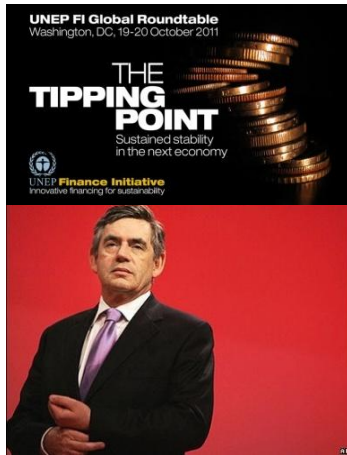
May 2011

Contents

- UNEP FI 동향
- Asia Pacific 지속가능금융
- UNEP FI KG Activities
- New Publications
- Register Now



前 영국 수상 Gordon Brown, UNEP FI Global Roundtable에서 금융 안정성에 관한 연설



올 10월 전 세계 금융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UNEP FI Global Roundtable에서 영국 국회의원 Gordon Brown(前 영국 수상)이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

Gordon Brown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시 전세계 금융정책 결정자들의 연대를 끌어낸 글로벌 리더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이번 Global Roundtable에서는 금융안정성과 금융시스템 리스크, 지속가능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금융위기의 파급 영향력이 전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London G20 Summit에서 타결될 수준의 범세계적 협조와 통합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UN 커뮤니티와 금융시스템 리스크 및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인계이지먼트가 시작되면서, 기후변화, 자원부족, 물가불안정 및 소득불평등 등이 금융산업과 국제자본시장의 향후 동향을 결정짓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여러 도전과제를 수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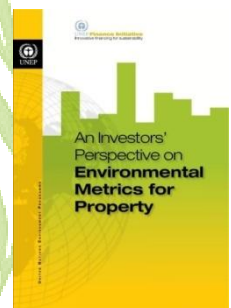
더불어 베스트셀러 <블랙스완(*The Black Swan*)>의 작가 Nassim Taleb, 리서치 인 모션(RIM)의 공동 CEO James Balsillie가 Global Roundtable의 스피커로 확정되었다.

상세내용 참조

UNEP FI 최신 보고서, 자산투자산업의 환경메트릭스 통합 촉구

<자산환경메트릭스 투자전망> 보고서는, 환경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성과와 이에 관계된 기능 향상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자산 메트릭스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UNEP FI의 자산운용그룹원과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연간 진행된 협의사항의 결과가 본 보고서에서 도출되었다.



UNEP FI 의장 Paul Clements-Hunt는 “보다 효과적인 환경메트릭스의 형성까지는 두 가지 난관이 있는데, 첫째, 고객들이 보다 자유롭게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업계 리더들이 보다 조직적인 운영방식으로 환경메트릭스에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환경메트릭스는 건축물의 친환경적 성과와 성능향상정도를 수량화하여 측정하는 도구로서, 부동산업자 및 건물주들 사이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세내용 참조

금융기관들, 투자자친화적 산림·탄소시장의 중요성 강조

지난 5월 6일, 런던의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유럽본부에서 UNEP FI 보고서가 런칭되었다. 이때 선도적 금융기관들은 보다 효과적인 산림·탄소 규제의 강화를 강조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논의를 하였다.

은행, 보험사를 비롯한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REDDy-Set-Grow: 산림·탄소시장 내 금융기관의 기회와 역할"의 조사 결과를 환영했다.

"REDDy-Set-Grow"는 REDD+ 시행을 특히 강조하였다. REDD+란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 내 산림 황폐화 및 산림환경 악화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메커니즘이다.



작년 12월 멕시코 칸쿤 기후변화협상에서, 각국 정부는 REDD+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체제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REDD+의 시행 및 재정 지원은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으며, 이는 다음 기후변화 협상 개최지인 남아프리카 Durban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논의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REDD+ 시행을 위한 총 투자규모가 공적 역량을 초과하여 민간부문의 역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EDD+ 시행을 위하여 각 민간부문과 금융기관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산림·탄소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권고안을 포함하는, 즉 정책결정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REDDy-Set-Grow"의 차기 보고서는 6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상세내용 참조](#)

2011년 6월, 호주에서 환경 및 사회리스크 분석 관련 워크샵 개최 예정



6월 6 ~ 7일 일정의 호주 시드니 연수과정을 비롯하여, 9 ~ 10일 멜버른에서 UNEP FI와 Ecobanking이 사회리스크 분석 워크샵을 위해 최초로 회동한다.

본 세미나는 참가자들의 기술적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클라이언트와 투자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환경 및 사회리스크를 실제 상황의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여 평가한다.

워크샵 참가자로는 리스크매니저, 신용담당자와 애널리스트를 비롯하여 호주와 뉴질랜드의 은행 내 지속가능성 및 환경부서 임원 등이 특별히 선별되었다.

[상세내용 참조](#)



From Cancun to Durban:

본(Bonn) 기후변화회의에서 UNEP FI, 공공-민간부문 간의 교량 역할



곧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되는 2011년 UN 기후변화회의에서 UNEP FI가 각종 이벤트를 통해 현재 기후변화문제에 관련된 공공-민간부문 양측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후변화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 및 투자자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국제 기후변화회의의 참여율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그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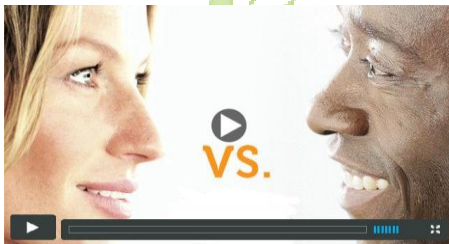
6월 이와 같이 중요한 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UNEP FI는 업계 대표자들 및 국제정책결정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교류를 통해 공공-민간부문의 간극을 좁힐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이벤트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민간자본에 관련한 워크숍을 비롯하여, 환경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손실 및 훼손 리스크의 새로운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최근 런칭된 'REDDy-Set-Grow' 차기 보고서에 대한 협의결과가 본 회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상세내용 참조](#)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UN 환경프로그램이 개최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계 환경의 날'(WED: World Environment Day) 행사가 개최된다.

매해 6월 5일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전 세계적인 환경인식의 전파를 위해 1972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특히 2011년 행사는 환경관련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광범위하게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UNEP는 가능한 한 많은 개인 및 단체의 환경활동 가맹, 서약을 목표로 한 '세계 환경의 날 유산 프로젝트'(WED Legacy Project)를 발족하였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유산 프로젝트'는 UNEP 친선사절단 Don Cheadle과 Gisele Bundchen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광고를 선보이며 관중의 이목을 끌고 있다.

[상세내용 참조](#)



NEW MEMBER: Bancoldex, UNEP FI에 새로 가입



지난 4월 말, 콜롬비아의 기업발전 및 대외무역 은행 Bancoldex SA가 최근 UNEP FI에 새로 가입했다.

Bancoldex의 CEO Santiago Rojas Arroyo는 “지난 10년간 환경 및 기후변화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졌다. 따라서 환경지속가능성 활동에의 참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다. UNEP FI와의 파트너십은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으로서, 바로 이러한 트렌드의 이해를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세내용 참조](#)

Bancoldex 는 1991년 복합자본을 기반으로 설립된 국영기업이다.

Bank of America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목표 수립

Bank of America.



Bank of America는 이번 달 초,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15% 저감을 목표로 하는 새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 목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달성한 온실가스배출량 18% 저감에 뒤이어, 세계 40개국에 분포해 있는 각국 은행 지사에 적용되어 시행된다.

Bank of America Global Technology and Operations 이사 및 同 회사 환경위원장 Catherine P. Bessant는 “배출량 저감은 우리 은행이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각종 악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효율을 증대시키고, 우리 회사와 이해관계자에게도 대단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Bank of America는 전체 은행업계 90%에 이르는 당사 에너지소비량 감축에 초점을 맞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세내용 참조](#)



일본, 폐열 에너지 전환 장치 개발



일본의 진공기술회사인 Ulvac-Riko 사(社)가 폐열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을 이용해 75°C에서 150°C까지 물의 가열 온도에 따라 약 3kW에서 12kW 내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폐열 에너지 전환 기술은 공장이나 자동차, 배, 태양열, 스팀, 연료전지, 온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원료로 열을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열에너지를 곧 바로 전기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전력 수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방향을 잡고 있다. 현재로서는 시스템 내구성을 위한 분야별 테스트를 거친 후에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세내용 참조](#)

LS전선, 亞 첫 풍력모니터링시스템 국제인증



LS전선(대표 구자열)이 아시아 기업 처음으로 풍력발전 모니터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LS전선은 자사의 풍력발전 모니터링시스템 CMS가 독일선급협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LS전선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 동안 독일선급협회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포함한 테스트를 거쳐 이번 인증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LS전선은 이달 22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풍력발전용 해저케이블·배전케이블·통신케이블·제어케이블 등과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상세내용 참조](#)

그린 다보스포럼 20~21일 서울서 개최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2011'을 오는 20~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한 최초의 국제기구인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창립 1주년과 한국의 OECD 가입 15주년 등을 기념해 마련됐다.

'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이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리는 본 서밋은 녹색성장의 미래 공동체라는 개념 아래 '녹색 분야의 다보스포럼'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또 동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협력 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우리나라가 선도해 온 녹색성장 비전과 지구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국가 간 협력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상세내용 참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성 발전 언급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정상선언문과 부속문서를 채택했다. 3국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한 노력과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3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제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상세내용 참조](#)

중국, 28억유로 규모 그리스 태양광사업 진출



그리스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 중국 기업들이 뛰어 들었다. 중국무역협회는 최근 중국의 동팡, 시노 솔라와 28억유로 규모의 그리스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유징 중국 기계 및 전자제품 수출입을 위한 상공회의소 의장은 "이번 협력은 전망이 매우 밝다"며 "이는 그리스가 태양광 사업 추진에 매우 유리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상세내용 참조](#)

일본, 소프트뱅크 사(社) 태양열발전 구축계획 발표



일본 이동통신사인 소프트뱅크 사(社)가 재생에너지 장려를 위해 지역당국과 손잡고 태양열 발전소 10기를 건축하겠다고 발표했다. 3월 11일 일본에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원자력 비상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앞으로는 태양열이나 풍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프트뱅크와 지역당국은 자연에너지전력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자연에너지의회(Natural Energy Council)'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사태 이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Naoto Kan 일본 총리는 2030년까지 일본의 에너지 수요의 절반을 원자력으로 대체한다는 국가에너지정책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를 핵심 에너지로 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상세내용 참조](#)



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에 '신성솔라에너지' 선정

- '히든 챔피언'이란 수출액 1억 달러 이상의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는 기업
 - 숨은 잠재력이 있는 강소기업을 찾아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지원
 - 2019년 까지 기업에 20조원 지원 등 파격적 제도
- 신성솔라에너지 관계자, '히든 챔피언' 선정에 힘입어 해외시장 개척 및 태양광 산업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

KB국민은행, 201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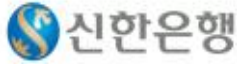


-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한해 지속가능경영 활동 내역과 성과를 공개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을 '변화', '가치창출', '지속가능한 사회' 등 세 개의 핵심영역으로 구분
 - 국제기준 GRI에 따라 작성
 - 외부독립기관의 제3자 보고서 검증 실시
- GRI 레벨 중 최고등급인 A+를 획득해 보고서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

우리은행, '남산 사랑 화분 나누기 행사' 실시



- 지난 4일 남산 팔각정 광장에서 '우리은행 1社 1山 남산 사랑 화분 나누기 행사'를 실시
 - 우리은행 이순우 은행장 등 임직원 100여 명은 팔각정 광장에서 남산을 찾은 시민들에게 남산을 사랑해 달라는 의미의 '남산 사랑 화분' 1,500개를 나눔
 - 서울의 상징인 남산의 멋을 알리고 도심 속에서 남산이 주는 푸른 환경의 고마움을 시민들과 함께 나눔
- 매년 등산로 청소·새집 달기·식목행사와 외래식물 제거·수목 표찰 설치·남산 벚꽃축제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남산을 가꾸고 알리는데 동참



신한은행, '한국사회공헌대상' 6년 연속 수상

-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은 5월 31일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1 제7회 한국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부문' 상을 수상
 -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한국사회공헌대상'은 한국언론인포럼이 주관하여 사회공헌활동의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해 사회공익성 운동을 정착시키고, 지속가능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정된 상
 - '사회공헌부문상'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중복 수상
- 뚜렷한 사회책임경영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

하나은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2010년 한 해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내역과 성과를 공개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
 -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하나은행의 노력을 반영
 - 국제기준 GRI에 따라 작성
 - 외부독립기관의 제3자 보고서 검증 실시
- GRI 레벨 중 최고등급인 A+를 획득해 보고서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



대구은행 자회사 DGB금융지주, 한국표준협회와 녹색경영 활성화 MOU



- DGB금융지주는 5월 27일 오전 대구은행 본점에서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녹색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
 - 대구·경북 지역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녹색경영과 관련된 검인증, 교육, R&D, 인력양성과 저탄소 녹색경영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기술지원 등을 협약
 - 대구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DGB STOP CO₂플랜'을 추진
- 2010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에 이어 올해는 녹색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과 인증심사를 진행



삼성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8개 보험사 '탄소중립' 참여 상품 출시

- 에너지관리공단은 9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8개 보험회사를 '탄소중립' 참여 단체로 등록

H 현대해상



- 이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 여행·행사 등 일회성 보험의 이용자가 발생시키는 탄소를 줄이는 '탄소중립' 활동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탄소 상쇄금 지불
- 상쇄금은 나무심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를 줄이는 사업에 사용 예정
- 8개 보험사의 탄소중립 상품을 통해 연간 200억 원의 탄소중립 기금을 조성하고 이산화탄소 130만 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New Publications

Responsible Investment in Private Equity: A Guide for Limited Partners



책임투자는 ESG(환경,사회,기업책임구조)의 여러 요인들이 투자 및 소유권 결정에 통합된 투자방식을 말함

PRI 서명 기관들이 장,단기적으로 ESG 리스크와 기회를 고려하여 자산을 투자하고 운영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확보에 유리하며, 투자프로세스에 ESG 통합이 미흡한 자산운용사는 운영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각 단계별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운용에 있어 신탁의 의무를 지는 만큼 기업별, 산업부문, 자산계층 및 시기에 따라 구분되는 ESG 리스크와 기회를 발견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사모투자 전문기관들은 각 투자 기업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여 ESG 요소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상세내용 참조](#)



새로운 온라인 교육과정, 금융 관점에서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작년에 있었던 파일럿버전 발표 이후,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에너지효율적 건축자금 조달에 관한 새 UNEP FI 온라인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건축물 파이낸싱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제목으로 하여 개설된 새 교육과정은, 에너지효율성 프로젝트, 특히 건축물과 관련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에 투자하는 파이낸싱 기관을 소개하며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신용평가 애널리스트, 상품개발자들 및 여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 수강 인원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수강 신청 요망

[상세내용 참조](#)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ECO-FRONTIE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6층
Tel: (+82 2) 3153-7725 Fax: (+82 2) 3153-7703
www.ecofrontier.com

